

16. 구원사업과 이스라엘의 역할

2012. 4. 15.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중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셨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살펴보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롬3:1,2]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기업을 물어주는 일에 대한 예표와 성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라는 사실을 새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구약 예언에 구원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지요?

답: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 잘 가르쳐줍니다. 방해는 언제나 먼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데서, 또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서 시작되지요. 물론 그 배후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일을 일찍 준비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롯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지요. 아브라함의 맏형이 하란인데 하란은 데라의 식구들이 갈데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둘째 형인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한 것을 보면 하란의 아들 롯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별로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막내 삼촌인 아브라함과 연배가 비슷하니까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나 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막내 삼촌하고 같이 생활한 것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가족을 치는데 결국 목초지 문제가 생겼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떠나서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롯은 자기가 먼저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이 있는 들을 택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사단이 작용했지요. 욕심을 자극한 것이지요. 삼촌에게 선택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에덴처럼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조금씩 소돔 쪽으로 가서 마침내 소돔성에 살게 되었지요. 그때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악한 성에서 받은 감화는 소돔이 멸망할 때 나타난 롯 식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잠깐만요. 롯 사건이 이스라엘이 구원사업에 한 역할을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롯 가족 이야기를 합니까?

답: 예,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한다고 했지요. 사단은 롯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포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돔은 아주 악한 도시였는데, 그들이 너무 잘 부유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스겔 16:49,50절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시겠습니까?

[겔16:49,5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50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교만하고, 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교만인데, 또한 남색이 그 도시의 부패한 특성이었지요. 롯이 그런 그들의 사회생활과 도덕적 부패를 보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물들었지요. 벙후를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지요.

[벙후2:6~8]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상한다는 말이 “바사니조”인데 “고문한다.”는 뜻이 있고, “재앙을 받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고문당하듯이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인데, 그렇다보니 자기도 상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상하다고 번역했는데, 상한다는 말은 상처를 입는다고 말도 되고, 또 부패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롯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삶과 성질을 닮아갔다는 의미도 포함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하여 함께 도망가자고 하니까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위들에게 롯이 끼친 인상이지요. 농담 잘하는 장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롯이 상한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야단을 했지요. 이때 반응한 롯의 태도는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 표준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롯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 안에 다 들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래서 결국 롯의 가족들이 정말 끔직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업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요?

답: 그런 일로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도구를 마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롯의 두 딸도 그곳의 감화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롯이 자기의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한 것은 끔직한 제안이지요. 사사기에도 보면 레위 사람을 집에 영접한 집 주인이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당시 풍속이었는지 모르지만요. 주석가들은 부권, 즉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사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아주 비 윤리, 비도덕적인 발상입니다. 그만큼 롯이 소돔의 물이 든 것이지요. 결국 롯은 천사의 이끌어냄으로 소알로 갔지만 그것도 두려워 마침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없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

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두 딸이 롯으로 인하여 잉태하고 만딸은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벤암미를 낳았는데, 그것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또 에서족속들인 에돔 족속들도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이들은 사실 다 조상으로 올라가면 데라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적하지요. 사단이 그렇게 포석을 한 것입니다. 이 족속들은 블레셋과 아람 족속들과 더 잘 어울렸습니다.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가나안 풍속을 따르고 퍼뜨리고 결국 사단은 이스라엘이 동방풍속에 빠지게 하여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게 하였지요. 구약성경에 이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 많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주, 집요하게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주 통렬히 책망과 저주의 기별이 전달되었지요.

4.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단이 참 일을 잘합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사람은 이미 약하고 아담 안에서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하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아니한 거짓말을 하는데, 꼭 그 거짓말이 필요한 때에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잠언 잠9:17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고 했는데,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 깊이 도사리고 있는 부패성을 잘 나타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민족들이 공격하고 그들의 생활환경이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쉽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인의 생활모습을 아주 익숙하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까지라도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쉽게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크신 권능과 이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시대를 지냅니다. 그 기간에도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문화적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에 적절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마침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만납니다.(행13:22)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주위의 나라들을 복종하게 합니다. 다윗은 주로 정복전쟁으로 일생을 보내지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등등 주위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합니다. 그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하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지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올바르게 주위 나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목적을 위하여 큰 지혜를 주셨지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더 받기 전에도 이미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상 2장을 읽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상2:9입니다.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

은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았지요.

5. 아, 정말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사단은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군요. 특히 여자들을 통하여 그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답: 예, 아마도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믿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다른 것은 다 그냥 우상이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것 섬긴다고 해도 어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이 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자기기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아마도 처첩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같이 가서 절하자고 하니깐 동행했지요. 자기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향해 있으니 이런 아무것도 아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될라고.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 치명적인 우상숭배의 문을 엽니다. 지혜가 탁월하여 당시 어떤 지혜자도 당할 수 없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훗날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 벤엘과 단에 세우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예배한 것도, 멀리는 아론의 모본이지만, 가까이는 솔로몬의 모본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6.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선지자들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답: 성경은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롬3:2)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고 대답합니다.(롬3:3) 사단은 이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구주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마침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북방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방 유대는 그래도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지요. 그들은 구주가 와서 이런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천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국가를 통하여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단의 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형벌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은 이런 배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하여 가장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롬1:18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덕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것보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할 악이 됩니다.

7.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중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구원을 영똥한 곳에 두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민족과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쳐주도록 건축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해서 의도적으로 바벨론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등, 이스라엘 주위의 군소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도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에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후상을 버리고 간 사실을 기록했습니다.(삼하5:21) 성경에는 이 사건만 기록되었지만 아마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그런 짓을 자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근히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부속되게 하려는 사단의 책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을 그것을 치워버렸지요. 아마도 불살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우상을 도입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라 하고 섬기는 일은 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 하는 일에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것의 설계도를 보내어 그와 같은 제단을 만들게 하여 성전 뜰에 갖다놓고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을 치웠습니다.(대하28:21~25 왕하16:10~14) 이렇게 스스로 우상을 택하였지요.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국민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바벨론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은 바로 사단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정책이지요.

8. 그런데, 목사님,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는 데는 히스기야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벨론 문병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별만 잘 증거했어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답: 성경 기록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시대와 가나안 정복시대입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 낫는 것과 관련된 이적입니다. 다음은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우주에 참 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적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도 만찬가지이지만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할 때 나타난 이적은 아하스의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천연계를 주장하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제패를 호시탐탐 노리는 당시에 앗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소국 바벨론이 그 먼데서 조그마한 나라 유다까지 문병사절을 보낸 것은 히스기야가 엄청나서도 아니고 유대나라가 대담해서도 아니지요. 그 나라 왕의 병을 낫게 하는 징조로 해를 움직인 그 나라 신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시계는 바벨론에도 있었으니까 거기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갔으니 일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보고를 받은 왕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유다라는 나라의 왕의 병을 낫게 하는 표로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바벨론 왕은 그 해를 지배하는 능력의 신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를 기회를 찾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실패했지요. 그때 교만하여졌습니다. 사람이 형

통할 때 사단에게 잘 넘어가나 봐요. 이런 사실은 대하32:25~32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죽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는지 모르지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였는지요. 예루살렘 온 거리를 피로 채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왕하 21:1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손자 요시야가 개혁을 주도하고 유대가 회개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국민은 포로가 됩니다.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강할 때 했어야 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포로 되어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9. 결국 이스라엘 국가의 비극적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군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도 못한 그 일을 포로 되어가서 어떻게 수행합니까?

답: 그런 대답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지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제목이 성경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예언의 초점이 구주와 구주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업이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국가들의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누는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 책들을 살피도록 하지요. 기도하고 마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택한 백성들의 무지를 잘 보게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른 복음을 잘 증거 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